



●발행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편집 : 기획감사과 ●대표전화 : 419-4071~5

<http://www.yeongdo.go.kr>

(49011)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1st 글로벌 영도커피스타벌

커피도 마시고 축제도 즐기고 '1석 2조'

깊어진 늦가을 정취와 함께 커피 한 잔 할까요?



프로그램 일정표			
일자	시간	프로그램	내용
11/4 (금)	10:00~11:00	커피제작체험 소믈리에 페스티벌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커피제작체험 소믈리에 페스티벌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11/5 (토)	10:00~11:00	자연·문화 풍물 음악회	
	11:00~12:00		
	12:00~13:00	커피제작체험 소믈리에 페스티벌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도자기·디자인 제작체험	
	17:00~18:00		
	18:00~19:00		
11/6 (일)	10:00~11:00	커피박 화분 만들기	
	11:00~12:00	커피제작체험 소믈리에 페스티벌	
	12:00~13:00		
	13:00~14:00	아름카노·접수회 체험	
	14:00~15:00		
	15:00~16:00		
	16:00~17:00	비오는 거울처럼 웃는다! 풍물 페스티벌	
	17:00~18:00		
	18:00~19:00		



이호상 대표  
부산씨엔티바리스타학원

Q 커피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인생 커피라고 꿈을 만드는 커피가 있다면?

커피의 매력은 커피의 진한 향기와 함께 마음을 함께 전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력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커피 한 잔 할까요?”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나던가 커피 한 잔을 하기 위해 모이는 역할을 커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페셜 커피가 있지만 누구와 함께 커피를 즐기느냐가 인생커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커피

11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3일간, 아미르공원에서 진행

깊어진 늦가을 축제 소식으로 영도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다. '1st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 이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동삼동 해양박물관 일원인 아미르공원에서 개최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영도는 도심 가까이 바다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전망과 세련된 분위기, 완성도 높은 커피 맛을 앞세워 최근이 증이 자주 방문하는 커피 명소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도킬 로스터리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커피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부터 커피 축제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강소도 기준의 봉래동물원장에서 아미르공원으로 옮기면서 보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1st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에서는 주요 커피 생산국인 중미 6개국과 아프리카 등 현지에서 커피 농장주와 수출업체가 직접 참여한 글로벌한 행사로 진행된다.

현지인이 내려 주는 각 나라별 커피를 맛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함께 지역 카페들의 커피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가면서 맛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커피커플경연대회인 YCC (Yeongdo pentagon Cup tasting Championship)가 (사)한국커피협회 주관으로 현장에서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 입장에서는 재사용(리유저블) 컵을 지금받아 잔디위에 5개 존스페셜티존, 커피생산국존, 커피마신존, 커피재료존, 디저트존)으로 운영되는 홍보관에 무료 시음을 할 수 있으며, 커피랑 디저트도 현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4차산업 IT컵 VR체험관(부산정보산업 진흥원 협조), 커피 퀴즈스, 버스킹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11월 4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개막행사에는 초대가수 김범수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로도 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영도구청장은 “올해 축제는 영도가 부산 커피 산업 메카, 우리나라 커피 산업의 중심, 국제적인 커피 비즈니스 및 블류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면서 “또한 부·울·경 최대 커피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전국규모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경제과 ☎ 419-4472

#### Mini Interview

봉사 활동으로 바누아투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도 누구와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그날의 커피향과 기분 좋은 추억을 함께 간직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번 축제에 오서 그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Q 부산의 대표 커피지역으로 영도가 화제다. 커피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부산의 대표 커피지역으로 영도가 화제다. 커피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조업이죠. 현재 우리나라 커피산업은 98%의 수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커피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이 이태리, 미국에서도 커피를 재가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커피 산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가 커피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커피를 재가공 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Q 프로그램 중 YCC(커피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커피 경연이 다소 생소하기만 한데 어떤 대회인가?

보통 알고 있는 바리스타 대회는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현장감 있게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커피의 본질은 커피 갤러(Coffee Cupping)이라고 할 수 있으며 커피 산업의 제 1순위라고 생각할 믿음 중요합니다. 이번 커피 커핑 대회는 영도에서 처음 개최 되는데 지역 뿐 아니라 국내 커피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하는 선수 뿐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맘으로 지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대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료광고

## 해동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기압이 높은 공간 안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여 체내로 공급하는 치료로  
상처회복, 혈액순환, 세포 활성화 및 조직괴사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발 | 화상치료 | 잠수병 | 일산화탄소 중독 | 베거씨병

#### 면역클리닉

면역력 증진, 중금속 배출  
혈액순환 개선, 간 해독

#### 통증클리닉

신경통·만성통증  
근육통·암성통증 완화

#### 항노화클리닉

체지방 감소, 피부미백  
피부노화 방지, 피로회복

지역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 수술



해동병원 051)410-6300

종합건강검진센터 | 재활센터  
척추·관절센터 | 인공신장센터

# 영도구의회, ‘부산남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



영도구의회는 지난 10월 11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도구의회 의원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부산시 교육청은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희생시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영도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부산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편과 교육의 질 향상을 촉구했다.

##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남고 이전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해결하라!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환경은 시민의 주거지 선택 선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부산남고 이전은 영도구의 지역 쇠퇴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측된다.

부산남고 이전으로 말미암아 학부모들과 청소년의 유출이 야기될 것이고,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되어 지역 경제 첨단으로 이어질 것이 낙관적 예상된다.

영도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부산남고 이전 반대 운동과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교육부에 중앙부자심사 안건 상정이 부산되었던 사안을 기아이 윤혜숙에게 부산시 교육청이 자체 재정부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부자심사를 신청한 것은 영도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역 쇠퇴를 용인하는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몰각시키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 영도구도 포함되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어느 때 보다 지역 인구감소 억제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러한 인구증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에 역행하는 모순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점을 다하고 있는 영도구의회원으로서 참담한 심痛을 금할 수 없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소로 말미암아 교사가 비전공 과목을 수업하게 되는 등 교육의 질 하락은 단지 학교 이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부산시 16구군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청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희생시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직면하게 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제도개편과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 총량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시교육청이 강서구 멸지 학생 수 과밀화 사안을 부산남고 학생 수 감소와 결부시켜서 바라본다면 이는 영도구민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려면 이유로 영도구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남고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지역의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2022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 5분별고



영도구의회  
Busan Yeongdo-gu Council

최찬훈 의원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 행정의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많은 시책이 도입되지만 한번 도입된 시책의 폐지는 사실상 어려움,
-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의 계기 마련
- 절감된 예산은 행정수요가 많고 구민 편익 증대 사업에 재투자
- 구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거듭날 것을 당부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킨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킨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을 담배품으로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예정
- 영도 사랑의 의미와 영도 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
- 매력적인 담배품 발굴,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당부

-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에 대한 시책일률제 도입을 통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의 효과적 운용
-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당부



영도구의회  
Busan Yeongdo-gu Council

김은명 의원

(비례대표)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영도구는 사면이 해안과 접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영도의 관광명소로는 태종대, 영도대교 등 영도 8경이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 깊강이 예술마을 등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영도의 환경 특성상 영도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해안과 관광은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아젠다임,
- 이에 영도를 해양관광특구로 추진 할 것을 제안함,

## 영도 해양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노력 당부

- 영도는 기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개발계획 및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 의회동정

### 영도구의회, 노조 영도구지부와 상견례



영도구의회는 지난 9월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노조와의 상견례를 개최하였다. 영도구지부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처리 시 조합원 복지예산 승인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출장하여 대한 조례 개정 및 민원공무원 보호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며 의회는 구현 접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일부 의견과 축제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영도구 발전과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영도구지부와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의원연구단체 ‘영도 해양관광특구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로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제언과 함께 영도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은 특강을 통해 해양관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영도의 지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개발 계획 및 연계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도 해양관광특구 연구회’는 김은명, 서승환, 이경민, 김지현, 신기삼, 최찬훈, 김기탁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영도의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 해양관광특구 연구회’(대표 김은명 위원장)는 지난 10월 13일 영도의 해양산업과 관광지원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부산의 해양관광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 오랫동

안 부산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와 한국관광제작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산업 전반에 깊은 이해가 있는 해양관광 전문가인 부산광역시의회 최도석 의원의 ‘부산관광!! 해양관광이 점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도석 의원은 해양산업을 선도

###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참석

영도구의회는 10월 12일 제18기 영도 주민자치대학 개강식에 참석하여,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개강을 축하했다.

영도 주민자치대학은 영도구청 평생교육과와 한국 해양대학의 협력사업으로, 영도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개인의 교육역량강화와 지역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08년에 한

국 해양대 평생교육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영도구의회 의장은 “주민자치대학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8주간의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영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